

### “나주를 호남 중심도시로”

#### 강인규 나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당선자는 14일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 기필코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다 함께 고르게 잘사는 지역 등 이번 선거에서 시민과 7가지 약속을 했다”며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나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나주시대 도래와 역동적인 나주발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 전략을 가시화하겠다”며 “나주발전의 입체적 전략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프로그램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며 “민선 7기에는 발로 뛰는 행정의 모범을 보여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위대한 목포시대 열겠다”

#### 김종식 목포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자는 14일 “목포시민과 원팀을 만들어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목포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위대한 목포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 모든 결정은 목포시민이 위기의 목표를 구해내고 발전의 길로 들어설길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목포발전의 걸인



하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중앙당지도부가 약속한 수산식품종합타운 조성 예산 2,000억원을 활용해 목포발전 초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관광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실현시켜 목포관광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 “협치행정으로 새 시대”

#### 김산 무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당선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협치 행정으로 무안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승리는 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군민들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전남을 배려하는 문 정부와 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 도지사과 함께 무안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빠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와 항공복합 산업단지 조성, 로컬푸드 유통 합산업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소득을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도록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 “군민 화합 함평 번영만 생각”

#### 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자는 14일 “군민의 복지와 편익을 가장 우선하고 각종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구와 기업이 늘어나는 등 생산적 경제활동이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현재 함평은 위기와 기회를 함께 안고 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영세화 등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과 산단 조성 사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민과 하나 되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언제나 경청하는 마음으로 모든 군민의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편 네 편 없이 해묵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오로지 군민의 화합과 번영만을 생각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

#### 명현관 해남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자는 “군민을 섬기며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명 당선자는 “해남 이대로는 안 된다”며 깨끗한 국정, 공정한 사회, 소통하는 군수를 바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 소중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많은 군민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며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승리이기에 군민께 약속한 저의



공약을 하나하나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명 당선자는 “군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코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 “군민 삶의 질 높여겠다”

#### 이동진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당선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시대를 앞서고자 하는 위대한 군민들의 승리”라며 “진도 행복과 발전을 앞당기라는 군민 여러분의 엄중한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기간 밤낮으로 애써 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한몸이 돼서 뛰여주시 선거운동원, 자원봉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선거기간 함께 경쟁한 장일·김희수·이양래 후보에게도 “고생 많으셨다. 다 함께 손잡고 진도의 발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당선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혼신을 다해 지역 발전과 진도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도=박병호 기자

### “인구감소·경기침체 극복”

#### 김준성 영광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당선자는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더욱 큰 영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제 군민이 선택한 소속 정당을 묻지 않겠다. 그동안의 지지 후보를 따지지 않겠다”며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거 여정에 동행한 선거사무



원과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유세현장을 누비며 적극 지지해 준 당원 동지 여러분, 불발더위에 참으로 고생 많았다”며 “여러분이 흘렸던 땀방울을 마음속 깊이 담아 두겠다”고 다짐했다.

또 “연임의 기회를 주신 영광 군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영광=곽용순 기자

### “군민 위한 일등 영암 만들겠다”

#### 전동평 영암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당선자는 “6만 군민과 함께 영암의 더 큰 도약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등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당선자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열렬한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민선 7기에도 지난 4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해 온 것을 기반으로 삼아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많은 군민을 만나 대화하며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했다”면서 “민선 7기는 그동안 쌓아온 토대 위에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군민의 힘으로 경제발전과 복지영암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당당·깨끗한 군수 되겠다”

#### 이승옥 강진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당선자는 “항상 당당하고 깨끗한 군수가 되겠다”며 “군민의 편에서 서서 강진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오직 고향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치자는 일념으로 강진으로 돌아왔다”며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갈망하는 염원으로 강진군수가 됐으니 군민이 보내준 사랑, 믿음,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선거는 끝났고 4만 군민이



하나 돼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공약들을 세심하게 챙겨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군민들도 서로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며 “군민이 주인인 강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군민 행복시대 열겠다”

#### 신우철 완도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당선자는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모든 군정에 군민 목소리를 담아서 군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완도’를 향한 군민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 새삼 깨달았다”며 “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힘 있는 여당 군수로서 모처럼 주어진 완도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확실히 잡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그는 “문재인 정부와 막힘없는 교감을 통해 완도군의 중단 없는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 100년의대계를 탄탄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가장 급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전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전복산업장·단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도=최규옥 기자

### “천사의 섬 다시 한 번 비상”

####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신안군민 여러분께서 정당을 넘어서서 인물과 능력을 보고 무소속 후보였지만 신안군수로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우량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저의 당선은 진정한 정치 1번지의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보여주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천사(1004)의 섬 신안



을 다시 한 번 비상시키겠다”면서 “청년과 중년, 노인 등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율권을 보여주는 투명한 신안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주열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나주 실버경로대학 수료식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는 최근 문평면 복지회관에서 제 19기 실버경로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로대학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문평면분회 각 경로당 회장과 노인 회원을 대상으로 했다.

서정운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은 “교육을 통해 배우고 터득한 지혜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면서 존경받고 보람찬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목포대 산업체 멘토 특강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은 최근 목포대 신소재공학과·화학·조선해양공학과 등 이공계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멘토 특강’을 실시했다.

멘토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송진주 선임연구원과 대한조선 오상현 상무이사가 초청돼 강연에 나섰다.

목포대 재학생들은 “취업하는데 있어 유익한 특강이었다”며 “광주·전남 내 연구소와 회사를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목포=강성우 기자



#### 영암소방서 양파 수확

영암소방서는 농번기를 맞아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일손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100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영암군 시종면 양파재배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도왔다.

김기석 영암소방서장은 “소방 119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지역민들에 친밀한 조직”이라며 “지역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 함평 가정방문 놀이교실

함평군이 전문 강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가정방문 놀이교실을 실시, 호평을 받고 있다.

함평군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에 전문 강사를 파견, 플레이콘 개구리 피리 만들기, 악어 종이풍선 만들기, 퀴즈북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번 가정방문 놀이교실은 드림스타트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총 322회(세대당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함평=윤예중 기자